

정철원 담양군수, 군정 비전 실현 ‘박차’

LOCAL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정철원 군수가 최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정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역점사업 85건·주요업무 228건 등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집중

정철원 담양군수가 군정 비전 실현에 힘찬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송강정실에서 정철원 군수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정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으며, 역점사업 85건과 주요업무 228건 등 총 313개 사업의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특히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공식적인 보고회 형식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새로운 군정 철학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됐다.

정 군수는 보고회에서 군민과 약속한 '오담(五潭) 행복 약속'을 실행가능한 과제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안심 보육을 통한 양육 친화 환경 조성, 3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 창평전통시장 재건축 공사, 고서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담양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청년농 육성을 통한 활력 있는 농촌 조성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했다.

'오담 행복 약속'은 담양의 미래 비전을 담은 5대 군정 약속으로, 내륙관광 1번지·생태 정원 문화도시 조성, 행복한 삶이 있는 삶터·쉼터·일터 구현, 소득이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 도농 융합 경제자립도시 실현, 소통과 화합의 공감행정 구현 등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각 부서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군민이 제갈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달라"며 "불합리한 행정 처리가 없도록 기본과 원칙을 지키되, 민원인에게 언제나 대안을 제시하는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국기무형유산 박종군 장도장 광양장도박물관서 공개 실현

광양시는 박종군 국기무형유산 장도장 보유자가 오는 24~26일 3일간 광양장도전수관교육관(광양장도박물관)에서 공개 실현행사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장도장,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 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실현행사는 국기유산청과 국기유산진흥원이 후원하고 박종군 장도장 보유자가 주관한다.

전통공예인 장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넓히고 미래 세대에게 전통기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장도 제작의 전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행사 기간에는 장도 공방을 일반에게 개방하고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장도 제작 실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작업실과 전시실을 관람하는 일정으로 구성되며 박종군 국기무형유산 장도장 보유자와 이수자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시연을 진행하게 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lkjjin@gwangnam.co.kr

화순 봄꽃 축제, 27일까지 대장정 돌입

남산공원에서 전시·공연·먹거리 등 다채

화순 봄꽃 축제가 지난 18일 화순읍 남산공원 축제장에서 개장식을 열고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개장식에는 구북구 화순군수, 조재운 축제추진위원장, 오형열 화순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전남도·화순군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구북구 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서의 의미를 되새겼다.

개장식의 하이라이트는 축제장 입구

에 열린 축제장 게이트 제막식이었다. 상징적으로 게이트를 개방하는 세레모니를 연출하며,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은 남산공원을 돌아보며, 다양한 체험 부스와 전시 프로그램을 관람했다.

축제는 27일까지 10일간 여정으로 진행되며 '봄날의 꽃, 봄밤의 빛'이라는 주제로 남산공원 및 꽃강길 일대에서 봄꽃 전시·공연·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화순 봄꽃 축제가 지난 18일 화순읍 남산공원 축제장에서 개장식을 열고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장흥, '2025년 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

지역개발 부문 황월연씨...무산김 양식 성공

장흥군은 최근 군정 회의실에서 장흥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역개발 부문 수상자로 회진면 출신인 황월연씨(70·사진)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제55회 장흥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로 결정된 황월연씨는 무산김 추진위원장으로 어업인들을 설득해 전통 방식대로 산을 쓰지 않는 무산김 양식을 성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무산김주식회사를 설립해 어민들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및 가공까지 일원화함으로써 무산김 대량생산의 길을 넓혔다.



군은 친환경 김 생산으로 득량만 바다 생태계를 잘 복원해 지난 2017년 전국 최초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됐으며, 2022년에는 해조류 국제 유기 인증을 받아 베트남, 홍콩, 미국 등 해외로 수출물량을 늘려가고 있다.

이같은 장흥군 친환경수산물 발전과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황월연씨의 공로가 크다는 평가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살기 좋은 여수’ 여수만 르네상스 사업 속도

추진상황 중간점검...23개 전략사업·58개 과제 실행

여수시가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해 16개 사업에 대한 2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여수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5개 만별 특색에 맞는 보전과 균형개발 계획으로 23개 전략사업 58개 과제가 실행 중이다.

브랜드 사업의 하나인 '해양 마라톤 대회'를 지난 1월 전국 6200여명의 마라토너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으며, 사도 등 장수만 일원을 대상으로는 '여수

지질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에 이어, 내년을 목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여자만과 가막만 일원을 대상으로는 '국가해양생태공원'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인증'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 및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여수해만의 경우 박람회장 일대가 지난 2일 예비 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는 등 향후 국제회의복합지구로서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광양만에서 진행되는 '도도 LNG

터미널 사업'은 지자체가 기업과 주주협약을 체결, 지자체 몫인 230억원 출자가 완료됐다.

정기명 시장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수 미래 100년의 초석을 놓는다는 사명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더 살기 좋은 여수, 남해안 거점 마항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현판을 게시하고, 시내 버스 래핑 및 방송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영광군은 최근 장성군 경계 지역인 대마지구의 방제 작업 현장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대마지구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예방 나무주사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예방 나무주사는 병해충 감염을 사전에 막는 방제 방법으로, 장성군과 영광군 경계에 따라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피해 지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군은 소나무류 대신 편백과 활엽수로 수종을 갱신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숲을 유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재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